

# 일상감사로 예산 절감 '톡톡'

### 전북자치도교육청, 작년 계약 분야 등 539건 실시... 3억700여만원 절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일상감사를 통해 3억7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일상감사는 주요 사업 집행에 앞서 계획 단계부터 행·재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다.

일상감사 대상은 각급 학교 기준으로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시설 공사 및 물품 제조·구매, 2억원 이상의

용역 계약 분야 등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시설공사 분야 405건, 물품·용역 분야 108건, 기타 26건 등 총 539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 재정 낭비를 막았다.

특히 공사 원가계산 제비물 및 설계 물량 조정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한편, 가급적 5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한편,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다음 달부

터 소속기관과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일상감사로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 시행하는 계약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계약 분야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와 베트남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HUST)는 지난 23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전주캠퍼스 공학관에 국제 R&D공동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 글로벌 에너지 생태계 구축 교두보 확보

### 우석대-베트남 HUST, 국제 R&D 공동연구소 설립

우석대학교와 베트남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HUST)는 전주캠퍼스 공학관에 국제R&D공동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정희석 산학협력단장과 박미라 부단장, 부단티엔(Vu Dinh Tien) HUST 과학기술부장, 나혜수 전북특별자치도청 교육교통협력국장, 고영훈 교육개혁지원관, 서민강 ECO융합심사위원장, 박종현 탄소수소융합산업연구조합 사무총장, 김진성 비나텍(주) 전무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우석대학교와 HUST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5개 기관(기업)은 공동으로 산·학·연·관의 국제공동 R&D 및 인력양

성을 위한 글로벌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제R&D공동연구소는 양 대학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한국탄소산업진흥원·ECO융합심사연구원·탄소수소융합산업연구조합·(주)비나텍·(주)성일하이텍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체와 연구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업에 나선다.

또한 양 대학의 그린수소와 연료 전지 등 에너지 분야 고급·핵심 인재 양성과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지원, 한국연구재단·산업통상자원부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HUST와

함께 운영하는 국제R&D공동연구소는 수소와 미래 자동차 등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에너지 생태계 기반 구축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적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에 발맞춰 신에너지 산업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협력과 공동연구 및 교육, 연구 장비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HUST는 1956년에 설립된 베트남 최초·최고의 과학기술대학으로, 베트남 내 과학기술과 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과 우수 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심대학이다.

/장은성 기자

## 기초학력·교육결손 해소 매뉴얼 보급

### 전북자치도교육청서 제작... 두드림학교 등 담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초학력·교육결손해소 업무매뉴얼을 제작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업무매뉴얼에는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교과보충 프로그램 △학습지원센터 운영 등이 담겼다.

특히 집필진에는 자료의 현장성과

함께 기초학력 업무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력지원센터 초·중등 기초학력 협력교사들이 참여했다.

업무 서식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북학력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에 탑재했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올해 기초학력 보장을 넘어 기본학력 신장을 위해 학생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업무매뉴얼은 학교의 업무 지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전자기술원과 공동 '제5차 미래전북포럼'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2일 온누리홀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제5차 미래전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그린수소 생산용 수전해 기술'이라는 주제로 도내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석상일 특훈교수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탄생과 발전', 한국전자기술원 차세대전지연구센터 박노창 수석연구원은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기술'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해원 전주대 산학부총장은 "탄소 중립에 따른 그린 뉴딜 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다음달 정부 지원을 통해 한국 과학계의 스타를 배출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전문가를 초청해 제6차 미래전북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서비스현장 개정

### 서비스 이행 기준, 부서별에서 업무 분야별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월 중에 교육행정서비스현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서비스현장은 교육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표하고 그 실천을 도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행정서비스현장은 각 부서별로 이행 기준을 정하

고 있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에 자치도교육청은 교육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을 기존 부서별에서 탈피해 도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분야별로 개정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과 교류 구체화

### 피터 램 총장 일행 전북대 방문 2022년 협정 후 교류 협의 단기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 교원 교류 통한 공동연구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1일 자매대학 중 하나인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Temasek Polytechnic) 피터 램 총장을 비롯해 디자인스쿨 학장, 경영대학장 등이 본교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학은 싱가포르의 5개 국립 폴리테크닉대학 중 하나로, 전북대와는 지난 2022년 학술교류 협정을 맺고 인·물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방문단은 전북대 국제처 박성용 부처장을 만나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한 글로벌대학 대학 실현의 비전 등을 청취하고, 학술교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인국찬 대외취업부총장을 만나



전북대학교는 지난 21일 자매대학 중 하나인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Temasek Polytechnic) 피터 램 총장을 비롯해 디자인스쿨 학장, 경영대학장 등이 본교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대가 유학생 5,000명 규모의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단기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The Feeling Korea'에 참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인국찬 전북대 대외취업부총장은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방문단과의 이번 만남을 통해 그동안 진행해

왔던 학술교류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대학이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유학생 5천 명을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허브 대학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이 이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재산담당 공무원 맞춤형 교육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2~23일 충남 아산시 캠프인재개발원에서 상반기 재산 담당 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습득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재산 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국·공유재산관리 전문기관인 캠프인재개발원이 진행한 이 교육에는 본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 재산업무 담당자 37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관리 실무 △공유재산 법령 및 유권해석 △부담 점유 및 변상금 관리 등이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산업무 담당자들이 각자의 실무능력을 끌어올리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미국 뉴욕시의 멜로즈 중학교와 시우스 브롱스 응용 미디어 아카데미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방문단 16명이 전북교육청 국제교류수업의 일환으로 지난 21~22일 전주를 방문했다.

## 미국 뉴욕 학생들, 전주서 국제교류 수업 진행

### 멜로즈 중학교 등 방문단 16명, 풍남중·전일중·양지중 방문 전북자치도교육청 찾아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 논의

미국 뉴욕 학생들이 전주에서 국제교류수업을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의 멜로즈 중학교와 시우스 브롱스 응용 미디어 아카데미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방문단 16명이 전북교육청 국제교류수업의 일환으로 지난 21~22일 전주를 방문했다.

이들은 21일 전주풍남중학교를 찾아 풍남중과 전일중, 양지중 학생들을 만나 △학교 투어 △한국 문화 부스 체험 △전통 놀이 △버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 학생들과 소통했다.

시우스 브롱스 응용 미디어 아카데미의 교사 케이틀린 헨더슨(Ms. Caitlin Henderson)은 "대면 교류 활동을 통해 브롱스(Bronx) 아이와 한국 학생들은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면서 "이번 학교 방문으로

상호 간 매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일중 김휘찬 학생은 "평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미국 친구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어 뿌듯했다"면서 "국제교류를 통해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22일에는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국제교류수업 업무 담당자들을 만나 전북 국제교류수업 학교와 뉴욕시 공립학교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자치도교육청은 이번 뉴욕 방문단을 시작으로 올해 초처초(말레이시아), 육구중(뉴질랜드), 전주사대부고(호주), 완산고(일본) 등에서 해외 학교의 국내 초청 대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3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2024학년도 3월 1일자 신규교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유치원 교사 29명, 초등교사 73명, 중등 325명 등 모두 427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발령받은 교사는 교육지원청별로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으나, 올해는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임용된 신규교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신규교사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선배 교사들과 협력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지역 대학에 우수 인프라 개방

### 전북대, 군산대를 시작으로 지역 대학들과 잇단 협약 예정 도서관 시설 개방·프로그램 참여·학생자치기구도 협력

전북대학교 학생처(처장 김종석)는 지난 21일 군산대학교 학생처(처장 임기욱)와 글로벌대학 육성을 위한 전북대학교 기자재·시설물의 지역 대학 학생에 대한 개방 및 공동 활용 세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지역 10개 대학이 상생 협약을 체결한 이후 캠퍼스 개방을 위한 지역 대학 간 세부적 합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전북대에 따르면 군산대와의 세부 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원광대, 이후 전북지역 다른 대학들과도 잇달아 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대는 군산대

학교 학부와 대학원생들에게 중앙도서관의 도서와 e-book 등의 자료 대출을 공유하고, 논문 작성 지원과 학술 주제 강연 등의 학술연구 지원 서비스도 개방한다.

또한 향후 중앙도서관 주관의 공연과 전시 등의 문화프로그램 참여와 학습과 연구 활동을 위한 공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등 학생자치기구 간 협의회를 구성해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기자재나 시설물 개방을 위한 학생 지원 실무 부서 간 행정적 협력도 이뤄진다. /장은성 기자